



2012년 7월 14일

□ 미국 경제 동향

- 1) 6월중 소매판매액 지수, 3달 연속 하락 기록
- 2) 7월중 뉴욕제조업지수 예상외 상회
- 3) 미국내 휘발유 가격, 금년 최고점 대비 14% 하락

□ 해외 경제 동향

- 1) 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 2)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 산업·시장 동향

- 1) 미국,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제2도약기 모색
- 2) 미국내 비자마스터카드 사상최대 배상 합의
- 3) 월가, 원유거래시장 적극 개입

□ 미국 경제 동향

1) 6월중 소매판매액 지수, 3달 연속 하락 기록

- 지난 7월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6월중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0.2% 하락에 이어 0.5% 하락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전망치 0.2% 상승보다 크게 악화된 결과로 소매판매액지수가 3달 이상 하락세를 보였던 것은 지난 2008년 12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하락세를 나타냈던 기간 이후 처음
-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는 고용 시장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
 - 고용 시장 개선 개선이 둔화되면서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지 못함에 따라 이로 인해 소매업체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7월중 뉴욕제조업지수 예상외 상회

- 지난 7월16일(현지시간) 뉴욕 연준(FRB)은 7월중 제조업지수가 전월비 2.3% 상승한 7.4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블룸버그통신 집계 전문가 전망치 4.00를 상회한 수치로 제조업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시장 견해와는 상반된 결과
 - 또한 이번 결과는 유럽과 중국의 수요 둔화가 미국 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 지출의 둔화가 주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상쇄하는 결과
-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고 분석

3) 미국내 휘발유 가격, 금년 최고점 대비 14% 하락

- 지난 7월15일(현지시간) 휘발유가격 조사전문업체 런드버그 서베이는 지난 3주간 미국내 2,500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41달러로 이전 3주간 대비 7% 하락했다고 발표

- 이 같은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6일 갤런당 3.967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보다 14%나 하락한 것이며, 또한 지난 2008년 7월 11일 4.112달러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
- 지역별로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78달러로 최고를 기록했고, 미시시피주 잭슨이 3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남
- o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둔화세로 연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 갤런당 3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휘발유 가격이 여름철 휴가철과 원유가격 흐름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
- o 한편, 블룸버그 전문가 34명 가운데 41%가 오는 20일까지 국제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35%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
 -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는 48%가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한바 있음

□ 해외 경제 동향

1) 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 o 지난 7월16일(현지시간)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¹⁾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정식 착수했다고 통보, 한국 정부도 정식 대응에 나섰다고 발표
 - 중국 측은 최근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커진 것이 덤핑 수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 자국 업체들을 상대로 실질적 피해 여부를 조사해 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입장

1)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핵심 원료로 한국과 중국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

2)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 지난 7월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워싱턴 DC에서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
 - 지난 4월 전망치도 3.5%였지만 당시 반올림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0.1%p 하향 조정한 결과
- 이 같은 결과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요 신흥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망이 악화되었기 때문
 - 선진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 4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0.2%p 하향 조정
 - 반면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5.6%로 0.1%p 하향조정, 브라질은 기존 3.1%에서 2.5%로 0.6%p, 인도는 기존 6.8%에서 6.1%, 중국은 기존 8.2%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대부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IMF는 앞선 4월 전망과 비교해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유로존의 정책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해 유로존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미국·일본의 중기재정건전화 계획수립 실패,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적
- 한편 IMF는 이런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관리가 정책결정의 최우선이 돼야한다고 강조
 - 선진국은 금리인하 등 추가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채권매입 등 비전통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 신흥국은 성장률 저하가 정상화되는 국가는 과열 방지정책을, 인플레이 압력이 제한적인 국가는 추가 금리인하를 각각 고민하는 한편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추가 재정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산업·시장 동향

1) 미국,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제2도약기 모색

- 지난 7월14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셰일가스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소개
 - 에너지기업 대표인 조지 미첼은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셰일가스가 매장된 혈암층을 수압으로 파쇄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가스 역사상 가장 값진 기술이자 미국의 미래를 바꿀 기술을 개발 성공
- 이번 기술 개발로 셰일가스는 현재 미국 가스 공급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이 됐고, 오는 2035년에는 세계 가스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이 차지할 전망
 - 지난 2000년까지 셰일가스는 가스정에서 뽑아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는 가스로 취급 받아옴
- 한편 미국 북동부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州)는 페르시아만 사우스 파스(South Pars)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가스정의 고장이지만, 지난 2000년부터 미국 내 기존 가스정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가스 수입국으로 돌아설 준비를 한바 있음

2) 미국내 비자·마스터카드 사상최대 배상 합의

- 지난 7월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자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소매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으로 72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이 같은 합의사항이 최종 승인할 경우 카드사들이 물어야 할 합의금은 미국 독점금리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
 - 합의금 규모는 그 동안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낸 수수료 60억 달러와 수수료율 잠정 인하로 인한 카드업계의 향후 손실 등을 고려한 액수

- 이와 함께 카드업체들은 수수료를 8개월간 인하해주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소매상들은 12억 달러를 절감하게 됨
- 또한 이와 함께 이번 합의로 소매상들은 카드로 구매시 제품에 추가금액 (surcharge)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o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소매인들이 비자와 마스타카드, 은행들이 공모해 상품 구매가격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주장, 소송이 제기 되면서 발단이 됨

3) 월가, 원유거래시장 적극 개입

- o 지난 7월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JP모간,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미국 정유사들에 원유를 공급하는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
 - 특히 골드만삭스는 알론 USA에너지가 보유한 정유사들에게 원유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정제된 제품을 구매하는 최대 소비자로 부상
- o 대형 은행들이 이처럼 원유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재고 확보 비용에 부담을 느낀 정유사들이 돈을 대줄 수 있는 은행들과의 거래를 늘리고 있는 때문
 - 이에 따라 글렌코어, 비톨과 같은 원유중개업체나 BP, 로얄더치셸, 쉘브론 등의 상업용 원유 업체들과 월가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심화
- o 아울러 월가 은행들이 원유시장에서 역할을 확대한 것은 미국 규제당국이 금융기관들이 보유할 수 있는 원유파생상품 규모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는데 따른 영향
 - 은행들이 원유를 실물로 보유하면 파생상품 보유 쿼터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